

‘자유’ 찾아 떠난 이민자들의 신세계 관문

‘통한(痛恨)의 역사’ 지역 근대유산을 세계 문화자원으로

10 미국 엘리스 아일랜드·에펠로그

미국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옆에 자리잡은 작은 섬,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 이곳은 지난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이민자들이 입국심사를 받던 미국 최초 연방 이민국이다.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신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현재는 근대 미국 이민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화 자원으로 보존돼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유분방하고 개인의 독창성이 강한 미국에서 근대 유산인 해당 문화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자긍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소중한 근대 문화자원인데도 수십년 방치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드러낸다. 우리의 근대문화유산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절하게 아픈 ‘통한의 역사’이지만 본보기로 삼고 바로세워야 할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인 근대 이민자들의 모습.



엘리스 아일랜드 이민자박물관 전경.

◆이민 역사 그대로 보존

엘리스 아일랜드는 지난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이민자들의 입국을 심사하던 장소로 사용됐다. 배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수용해 신원확인은 물론 신체검사를 하고 병이 있거나 범죄자들은 돌려 보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민자 98%는 입국이 허용됐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은 이민자들에게 열린 곳이나 다름 없었다. 입국심사가 대거 이뤄진 62년간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에서 몰려든 1천200만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했다.

엘리스 아일랜드가 연방 이민국으로 문을 열기 전, 뉴욕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맨해튼에 있는 작은 캐슬 가든 이민국에서 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미국을 찾는 이민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민자를 전부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연방 정부가 개입에 나서 엘리스 아일랜드에 이민 수속 처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했다. 미국 최초 연방 이민국인 엘리스 아일랜드는 이렇게 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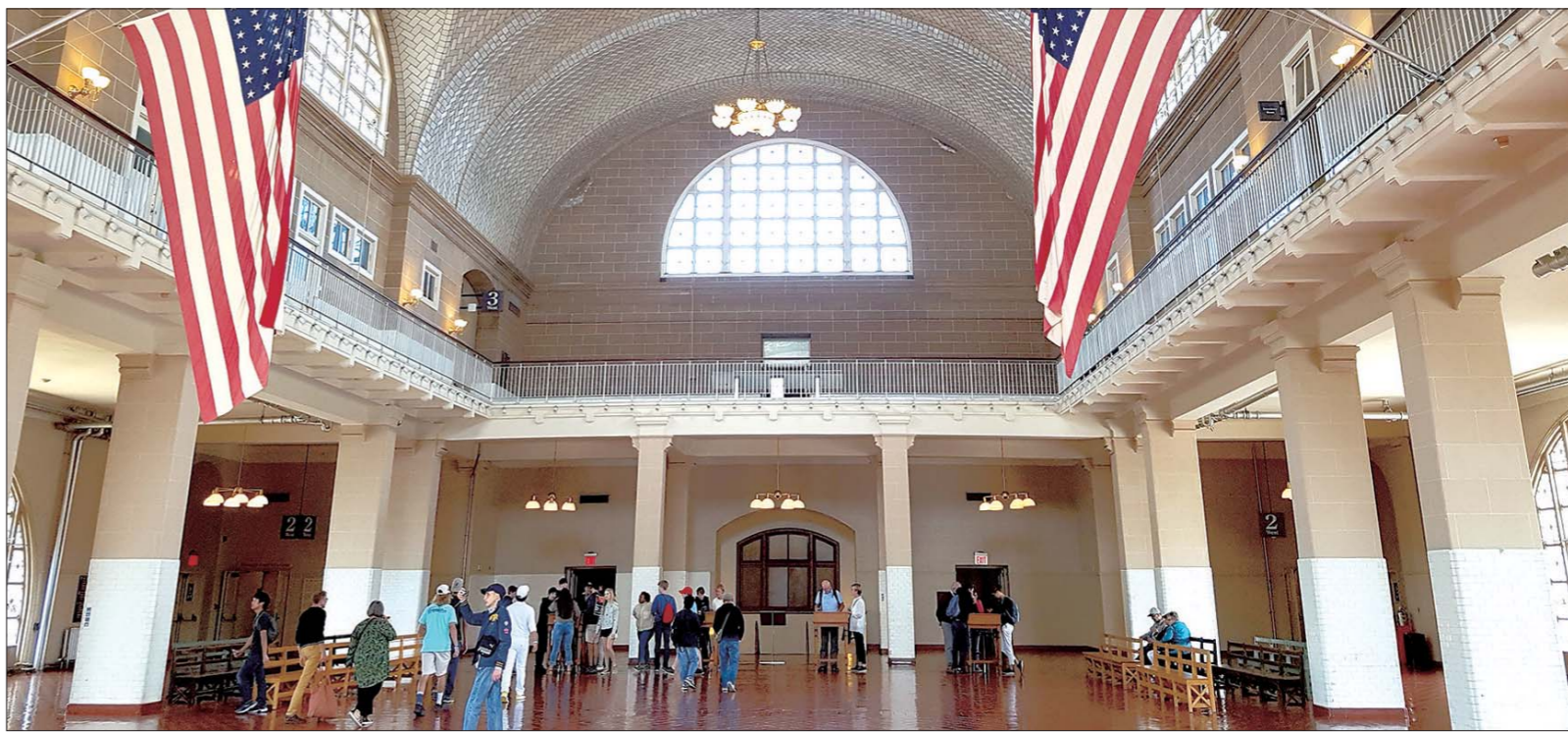
지난 1892년 목조 건물에서 본격적인 이민 업무를 시작한 엘리스 아일랜드는 불과 5년만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재건축돼 1924년 이후 이민국과 구치소로 간간히 사용되기도 했지만, 1954년에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엘리스 아일랜드는 근대문화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일반인에 개방되기 시작했다. 또 1984년 대규모 복원 사업과 1990년 본관의 이민박물관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뉴욕 대표 관광명소...보존 교육도

엘리스 아일랜드는 연간 4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전세계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의 대표 관광명소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당시에도 엘리스 아일랜드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볐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실제 이민 접수와 심사가 이뤄진 그레이트 홀이다. 홀 옆으로 이어진 3층 전



자유를 찾아 미국을 방문한 이민자들을 위해 입국 심사를 벌였던 그레이트 홀은 전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붐빈다.

지난 1892년부터 입국심사 벌인 연방 이민국

연간 관광객수만 450만명 뉴욕 대표 관광지

정부 주도 국가기념물 지정 관리·보존 본받아야

시관에는 근대 이민자들의 유품과 사진, 옷 등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물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생생함을 더해준다.

특히 전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각 나라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들은 미국이 다양한 인종과 나라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민자의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만난 관광객 제임스 브라운(60)씨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을 위한 심사가 실제 이뤄진 엘리스 아일랜드를 방문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 기뻐다”며 “자유를

찾아 당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의 심정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엘리스 아일랜드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근대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반 대중을 위한 보존 교육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아일랜드에 박물관을 오픈하고 보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박물관은 정부 기금이 아닌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의 개인 기부금 등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기념물 지정 혜택도

미국은 미국 이민 역사가 살아있는 현자인 엘리스 아일랜드의 근대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념물은 우리나라의 정부나 시도 지자체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등록 문화재 등과 비슷하지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성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기념물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낸다.

국가기념물로 지정되면 단순한 시설 개·보수부터 문화 전문 인력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 서비스국 주도 아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엘리스 아일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긍심도 상당하다. 이민의 역사를 이끌어낸 엘리스 아일랜드만이 지니고 있는 근대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하며 후대에 전승해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근무 인력들이 국가기념물을 상징하는 맞춤형 제복을 갖춰 입는 것도 근대문화자원을 보존·전승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엘리스 아일랜드에서는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사회와 미국 사회발전에 공헌한 이민자들에게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상’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엘리스 아일랜드 관계자는 “엘리스 아일랜드는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이민자들을 위한 열린 희망의 상징이었다”며 “이제는 세월이 지나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았지만 미국의 근간이 된 이민의 역사는 후손들에게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상’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뷰

“문화자원 국가 서비스로 보존해야”

제리 윌리스 공보관

“근대 문화자원은 순간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당 유산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국가정책 서비스로 지켜 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스 아일랜드에서 대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리 윌리스(Jerry Willis) 공보관.

윌리스 공보관은 “엘리스 아일랜드는 자유와 희망을 찾아 전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을 위한 열린 기회”의 땅이었다”며 “엘리스 아일랜드 역사 과거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기록이 사라지는 등 아픔을 겪었지만 근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개인 기부 활동도 다양하지만, 근대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도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는 시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져 더 큰 문화자원을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덧붙

였다. 그는 또 “근대는 미국의 경우 이민의 역사였다. 이민의 역사를 빼놓고 미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 각 나라마다 근대를 살아가고 처한 위치가 달랐지만 당대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존하며, 그들의 남긴 역사·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근대문화를 소중히 여겨 세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100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공식 후원 작 -

일본제국주의에 맞섰던 사람들

당대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역사에서는 승리한 우리들의 이야기!

북간도의 십자가

출연 **故문동환** 목사·**심용환** 역사작가 내레이션 **문성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위원회 공식 후원 작품 제작/배급 **CBS**

프로듀서 김동민 감독 변태경 구성 김어흥 촬영 송홍석 권병석 음악·작곡 류형선 애니메이션 정홍철 공동제작 (사)규암 김약연 기념사업회 **ONH**농업은행 | 전체관람가

절찬상영중